화살

빛나는 전통을 이어 받은
조선 인민군

허 능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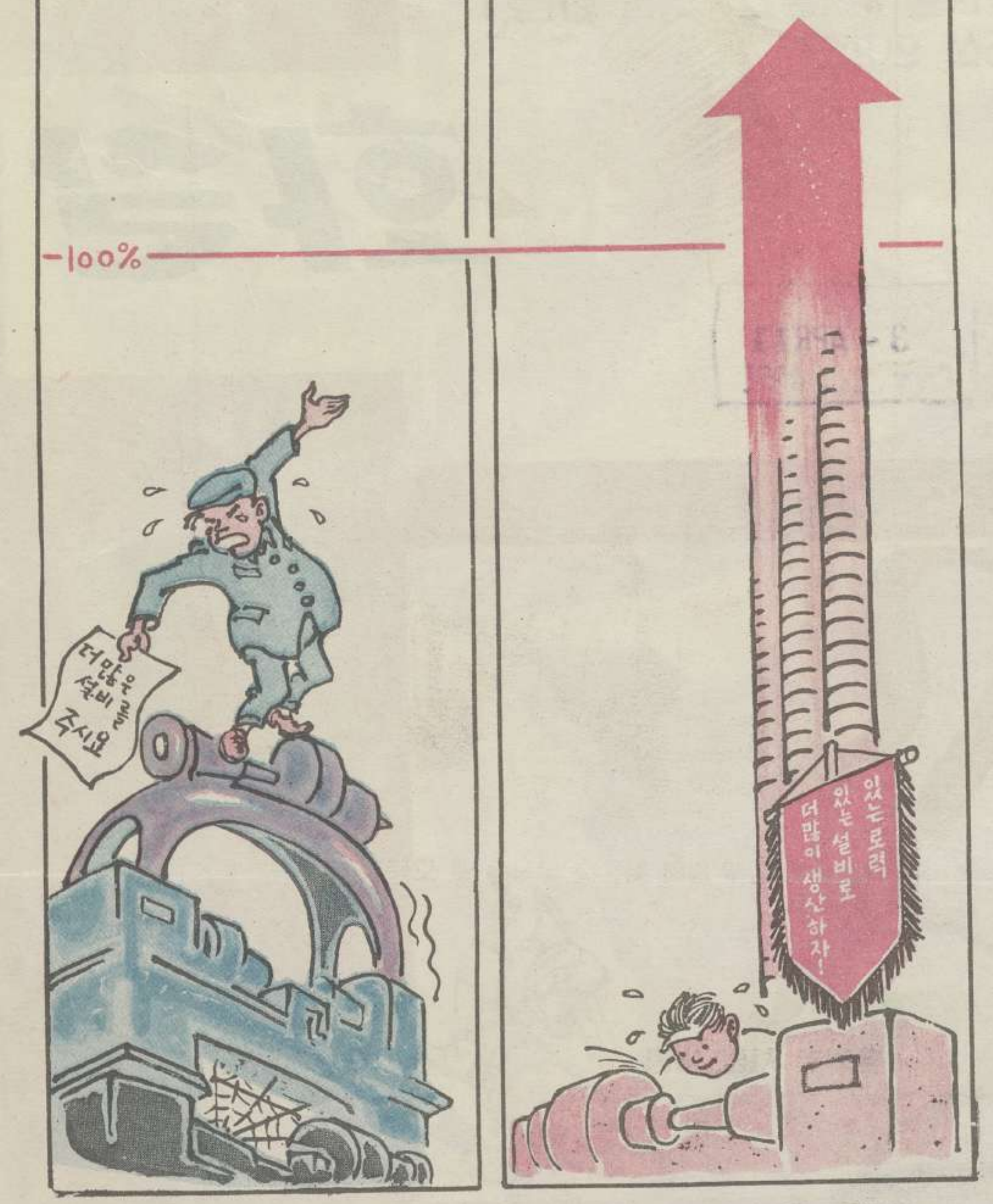
3 - APR 11
Copy ____ 1961

1960년 1월 하반호 (118)

있는 로력 있는 설비로 더 많이 생산 하자!

두 현상

최 영근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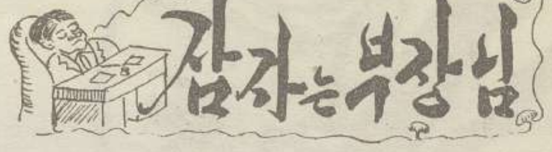


설비 리용률이 낮은 곳에서 설비 리용률이 높은 곳에서

조 명식 그림

일부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부속품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설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부속품이 없으니 또 한동안 쉬게 되였군!



잠자는 부장님

저는 평양 화물 자동차 수리 공장 기술 동력 부장입니다.

우리가 설비 리용률 제고에 무관심하다고요? 천만에! 계획서를 보시더라도 그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설비 리용률을 85%까지 제고시킬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돼 있는가는 보시면 누구나 인정할 것입니다.

업무부에서 공구, 지구를 만들 소재들을 보장하지 못해 공구 지구 부족으로 기대들이 돌지 못하는 시간이 적지 않으나 이에 대해서 우리는 업무부에다 독촉을 하고 있으니 노력을 안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 기간 기본 생산을 계획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동차 부속품 공급이 계속 딸린 결과 당장 급한 부속품 생산을 독촉받고 기대들이 만들던 것을 걷어치우고 다른 것을 만들군 하는 데서 소재며 공구 준비 시간으로 쉬는 시간이 많았지만 이것은 계획부의 책임입니다.

신입 로동자들에게 기능 양성 사업을 잘 안해서 그들이 기능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전혀 관계 없는 일은 아니나 이 부문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맡아 보는 로간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공장에는 기계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 기술 동력부에서 지난해 반년 동안이나 예비 보수를 못한 그 후과도 있지만 적지 않게는 직장들에서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그것은 기계 사고가 감소되지 않는 원인의 하나가 기계 사고가 나면 직장들에서 그 원인이 무엇이며 누구의 책임인가 하는 것을 밝힌 다음 공무 동력 직장에 수리를 의뢰하지 않고 수리하려부터 보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니 기계 사고는 줄어 들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상부에 제기했으니 노력을 안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들의 인계 인수 사업을 철저히 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공장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군대에서 보초 교대하듯 직장장이나 직공장의 립회하에 인계 인수를 진행하지 않고 기대공끼리 대강 어물어물 해치우군 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우리 부서에서는 노력을 많이 했지요. 기사장 동무에게 반영시켰으니까요.

왜 투쟁하지 않는가구요? 직장장들에게 이야기 했지만 듣지 않는 걸 어떠겁니까?

주인이 우리 아닌가구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보다도 기대를 직접 돌리는 직장들에서 더 책임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설비 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럼 설비 리용률이 얼마나 되는가구요?

그건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올라갔겠지요.

그러나 설비 리용률은 공장적으로 작년 10월은 45.3%, 11월은 43.2%, 당 중앙 위원회 12월 확대 전원 회의가 있은 이후인 12월에는 42.1%로 더 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인인 기술 동력 부장이라는 분이 설비 리용률이 떨어졌다는 것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설비 리용률 제고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리해하기 어렵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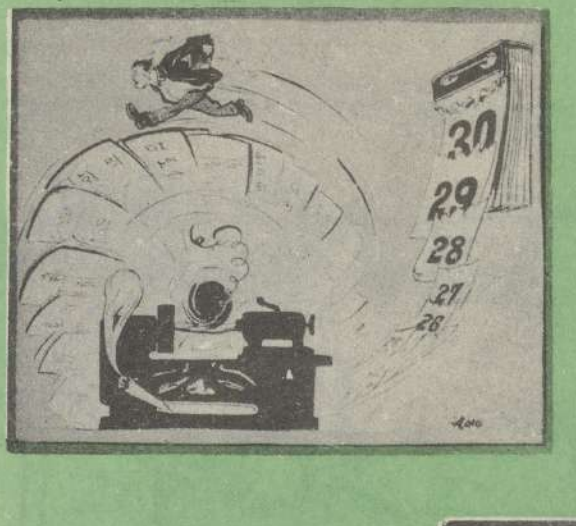
리 운봉

문서주의자의 고민

조 명식 그림

—일은 이렇게 많이 했는데 성과는 왜 오르지 않을까?

유일한 사업 방법



갑돌이의 량심

강선 제강소 홍 만조 그림

하나만 아는 관리 위원장

홍 종호 그림

—나를 버리고 가지 마세요!!

농기구 소회의 결론

며칠 전에 청단군 구월 농업 협동 조합 농기구들의 비상 회의가 소집되였다.

회의에는 탈곡기의 간단한 보고에 뒤이어 맨먼저 축력 제초기가 토론에 참가했다.

《…금년 봄만 해도 86 명의 우리 동무들이 배치되여 왔는데 쓰다가 이'발만 하나 부러져도 치료해서 쓸 생각은 손톱만치도 하지 않고 아예 병신으로 여기고 헌신짝 벗어 던지듯 하니 서러워서 견딜 수 없소. 엄동 설한에도 떨고 있는 병신된 우리 동무들이 근 40 명이나 되니 이걸 어떡하오?…우리들을 입원시켜 주지 않는 관리 간부들의 심정을 아다가도 모를 일이요.》

발동기가 벌떡 일어나더니

《여보! 말마우, 기름 넣는 귀'밥이 조금 떨어졌다구 야장'간 처마 밑에서 우리 동무들이 지금 오들오들 떨고 있소. 하두 딱해서 일전에 내가 관리 위원회에 들어 가서 〈위원장 동무! 우리를 좀 수리해서 탈곡장으로 내 보내 주시오.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탈곡 기간을 2 주일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고 하니까 〈자재와 기술자가 모자라는데…〉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소.》 하고 사업 의욕에 불타는 심사를 안타까이 토로했다.

고개만 푹 숙이고 생각에 잠겼던 선풍기가

《안타까운 우리의 심사를 일일이 다 말하자면 한이 없지요. 그렇지 않소! 피대를 감을 수 있는 조그만한 바퀴 하나씩만 우리의 축에 박아서 전동기로 돌린다면 하루에 적어도 20 공수의 로력을 절약하면서 북데기 탈곡을 벼 탈곡 작업과 동시적으로 끝낼 수 있겠는데… 나를 돌리는 조합원들이 내 곁에만 와도 기계화에 대한 성의와 관심이 부족한 관리 간부들이 원망스러워요. 놀고 있는 야장'간을 일하는 야장'간으로 조치를 취한다면 훌륭한 창의 고안품까지 나올 수 있어요… 제대된 신 조영 조합원은 창의 고안 명수라오!》

선풍기의 말이 떨어지자 좌중에 앉았던 축력 양수기가 손을 휘두르면서 흥분하여

《흥! 창의 고안품?… 우리 조합 야장'간 같은 초라한 것은 다른 조합에서는 볼 수도 없지요.》

이 밖에 많은 농기구들이 토론에 참가했다.

사회를 보면 탈곡기가

《동무들이 일치하게 토론한 바와 같이 우리들에 대한 관리 일'군들의 성의와 관심이 부족한 것은 곧 농촌 경리의 기계화에 대한 관심의 부족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결론을 관리 위원회에 제기하여 시정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피 호주

재차 버림받은 조합 재산

홍 종호 그림

돼지 타박

영수 여보게! 요즘 우리 조합원들의 돼지 두수가 무척 늘었단 말이야!

철준 그거야 그럴 수 밖에!

영수 그런데 어떤 조합원들은 밀발을 사료전으로 아는 모양이지?

철준 아니 그럴 수야 있나? 밀발이야 엄연히 밀발이지!

영수 아니, 그런 줄 아는 동무는 왜 돼지를 놔 먹이는거야 응?

철준 그건 말이야… 놔 먹이는 이웃 집 돼지들이 심심해할가바 그러지머…

황해북도 평산군내 일부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랭상모판 창문 준비에서 완만성을 찾아 볼 수 있다

문짝은 문짝이지만

홍 종호 그림

평남도 순안군 상송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토끼 사양 관리 사업을 잘 하지 않은 데로부터 많은 토끼들을 폐사시키고 있다

어미 토끼의 유언

.허 능택 그림

어미 토끼—너희들은 관리 위원장만 믿지 말고 몸조심 잘해야 한다

꾸준히 학습하는 기풍을 수립하자!

라침판

송 시엽 그림

《얼렁 뚱땅식》 학습

어떤 친구들은 국장 동지의 실력을 평가하기를

《그이는 한 방울의 물을 보고 바다를 알만한 지식이 있는 분》이라고까지 한 일이 있다.

그러나 국장은 사업이 너무 다망하다 보니 학습에 대해서는 아주 잊어 먹는게 례사였다.

이런 데로부터 이미 가지고 있던 지식은 잊어 버렸고 한편으로는 낡아졌으니 따라서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었다.

학습을 총화 지을 때나 사업을 총화짓고 보면 이것이 똑똑히 나타났다.

학습을 총화 지을 때면 국장이 진땀을 한줌씩 훔쳐 쥐고 해답을 얼버무려 넘기는 것이라든지 또 사업을 총화 짓고 보면 알곡과 축산 계획이 당 정책과는 엉뚱하게 틀려지는 것이다.

이것은 그 어느 친구의 평가와는 아주 대조적이였다.

그래서 국장의 낡은 사업 작풍과 《얼렁뚱땅식》 학습 방법을 한꺼번에 비판하여 줄 조건으로 되였다.

국장 동무는 하루에 4 시간씩 배당된 학습 시간을 몽땅 잘라서 행정 사업에 충당했으니 한달 잡고 국장 자신의 시간적 손해가 120 여 시간인데 부서내 동무들의 시간적 손해까지 합해서 3,360 여 시간을 잘라서 어디다 썼는가?

이런 산술적 질문에 대해서는 산만하고 무질서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련달아 포치하고 일이 안되면 계획을 변동해 보고 그래도 안되면 새로운 지시를 내리고 또 안되면 독촉하고 욕설하는 데 랑비했을 뿐이다.

국장의 대답은 이렇게 솔직히 나올 수 밖에 없었다.

지난 년도 농산 계획을 세울 때 일이였는데 이때로 말하면《일년지 대계》를 결정하는 시기여서 농업 기술 국내에서도 당 정책에 근거하여 이러 저러한 창발적 의견들이 종합되는 때였다.

이때 안 창균 국장의《중심 발언》은 《창조적인 계획》수립에 결정적 작용을 놀게 되였다.

국장의 토론인즉《자강도는 축산이 위주니까 축산 계획과 알곡 생산 계획에서 〈균형〉을 바로 잡되 〈주체〉가 똑똑하게 축산은 계속 발전시키는 방향이고 알곡은 축감하는 방향에서 행정 조직 사업을 추진시키자는 것입니다. 동무들의 의견은 어떻소?》

일부 동무들은 토론하기를 국장 동무의 의견에도 다소간 도리가 있기는 하나 《축산을 위주로 해도 알곡을 홀시할 수 없다는 원칙이 무시돼서는 곤난합니다》

이렇게 국장의 의견과는 대립되여 나왔다. 이러니 국장의 체면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여서 그랬던지 대뜸《무슨 소릴 하고 있소? 동무들은 당 정책을 〈주체〉없이 망탕 연구하는데서 〈주관적〉인 토론을 하는게 상습적이야, 그건 평지대에나 적당한 리론이구 자강도는 〈특성〉이 있단 말이오.》

이런 국장의《설득력》으로 정당한 의견이 눌리게 되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더 나왔다간 야단 봉변을 겪을 것만 같애서 더 나오지 못하고 말았다.

이래서 계획이 세워졌는데《경지를 비경지로 전환》하고 알곡 면적을《대담》하게 주린 국장의《창조적》 리론은 그의 《얼렁 뚱땅식》 학습의 열매였던 것이다.

덮어 놓고《주체》를 강조한 국장의 주장은 그후 사업에서도 나타났다. 그랬던데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반영이 아주《걸작》이였었다.

《금년엔 풀과 고기를 바꾸는게 아니구 흙과 고기를 바꾸게 마련이니 이런 세월을 겪어 보는건 머리에 털난 이후에는 처음 당해 보는 일이군!》

그럼《주체 있게》발전시키는 축산은 어떻게 되여 갔는가?

경지 면적은 콱 주리고 휴경지를 많이 조성한 다음에 사료 생산은 차후 문제로 돌려 놓고 덮어 놓고 열댓량 금으로 가축 두수를 장성시키는《운동》을 내려 먹여서 전개했다. 이래서 결국에는 농후 사료나 다즙 사료 할 것 없이 모자라게 된 일부 조합들이 생겨서 야단 법석까지 친 일이 있었다.

결국 불쿠려고 했던 이 운동이 하는 수 없이 어떤 놈은 자연 도태에 방임할 지경에 다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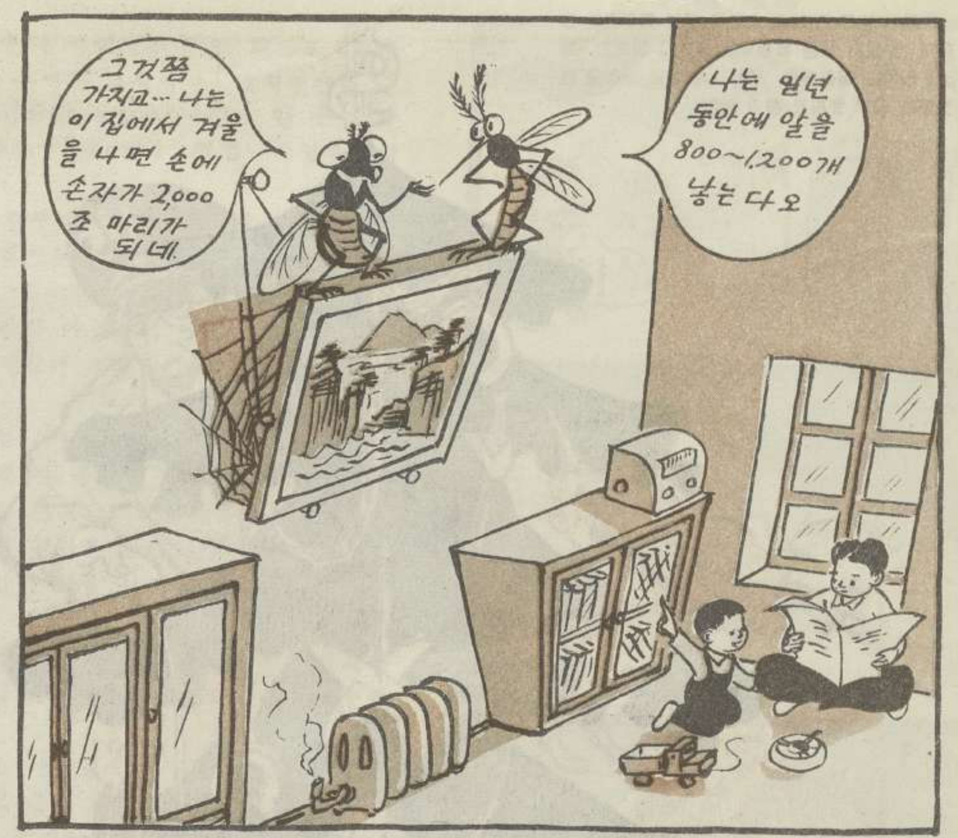
국장의《창조적》 솜씨가 파히 알만 했고 그의《주체》가 얼마나 엉뚱한가를 알게 되였다. 바쁘시다고 잊어버렸다가 바쁘신 틈에 그대로《얼렁 뚱땅식》으로 받아 삼킨 잘못된 학습이 실천에서 소화되지 못하고 얹친 것이 분명하였다.

서 득창

이런 일은 없는가?

룡두 사미

송 시엽 그림



아들—아버지 저 천정에 있는 파리 모기를 잡아요
아버지—내버려 두어도 겨울에는 다 죽는 단다

원 광수 그림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합시다

평양시 갑북 고중 림 왈용 그림

낡은 버릇

아직도 낡은 버릇을 시정하지 못하고 아무데나 담배 꽁초를 버리는 현상을 없애야겠습니다.

평남 개천군 제 7 탐사단 리 광일 그림

《깜박 잊었네》

어느 우편국에서 있은 일

—박동무 오래간만일세.
—오! 최동무 이게 웬일인가?
—동무는 어느 아빠트에 있나?
—우리 집은 요 우편국 착 뒤일세.
—근데 왜 벼개는 안가지구 왔나?
—아니 동생한테 돈을 부치려구 왔는데 벼개는 무슨 벼개야?
—잠옷을 입고 왔으니 말이지!
—오, 요즘 휴가로 쉬고 있어. 외출복을 깜박 잊었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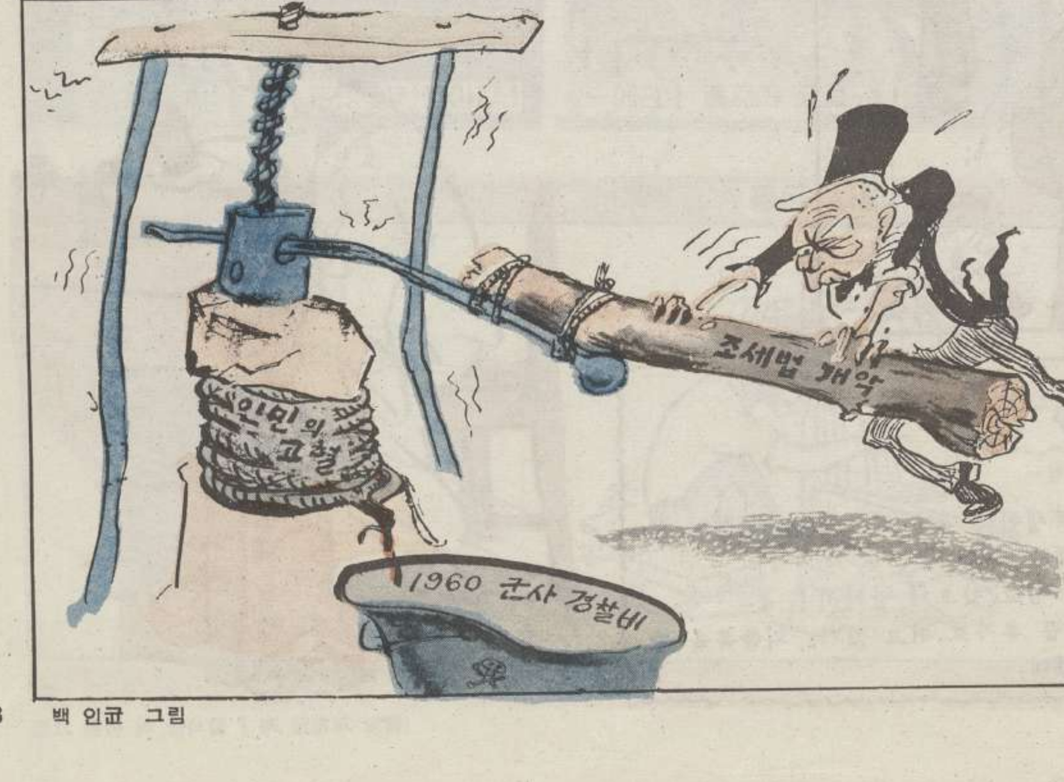
리 승만의 《신년사》

미제의 늙은 피뢰 리 승만은 세상 돌아가는 형편도 모르고 새해 벽두부터 또다시 깨여진 《북진》 라발을 불어대여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쓴웃음을 금치 못하게 하고 있다.

박 승히 그림

리 승만 피뢰 도당은 팽창된 군사비를 짜낼 목적으로 십여개의 세법을 개악함으로써 더욱 혹독한 징세에 광분하고 있다.

고혈을 짠다



백 인균 그림

모두다 떠는《대한》의 새해

…희

관 속에 한쪽 엉덩이를 들여 놓은 리 승만도 한 살 더 더러운 나이를 처먹어 더 관 다리를 잘 떤다.

《북진! 북진!》의 딸꾹질병에 턱까지 떠는 점에 있어서는 《대한》의 대통령 감투 끈을 놓지 않으려 발악할만 하다.

까마귀가 침을 삼키며 경무대의 나무가지를 떠나지 않는 것이 우연하지 않다.

—1년지 계는 재어춘이라고.

빨갛게 단 난로 곁의 안락 의자에 기대 포식한 올챙이 배때기를 어루만지며 매국 새 홍계를 꿈꾸는 미제의 충실한 늙은개 떠는 것은 구경'거리로는 될지몰라도 동정 느끼는 사람은 없다.

진짜 소한 대한 추위로 떠는 군상은 거리와 마을에 흘러 넘친다.

꿰여진 배잠방이나 단벌 홑옷을 걸친 10여만 리재민들이 찬 바람 휘몰아치는 판과 골짜기에서 뼈'속까지 스며 드는 추와 주림에 떤다.

실업의 왕국—주민의 근 3분의 1인 6백 60 여 만명의 실업자들이 신년 벽두부터 피'기가 없는 얼굴에 가실줄 모르는 수심을 띠고 직업 소개소 앞에 서서 떨고 있다.

하늘의 날짐승조차 깃들 곳이 있거늘—60만의 집 없는 형제들의 새해는 더욱 암담하기만 하다.

체불 로임을 받아 내려고 로동자들이 새해 벽두부터 공장 사무실 앞에 버티고 서서 투쟁하는 광경은 《대한》의 어느 도시에서든지 흔히 볼 수 있다.

제대로 주어도 최저 생활비의 3분의 1도 못되는 로임마저 7~8개월씩 체불하기는 례상사이니 기한에 떨지 않을 장수가 있겠는가.

신년 벽두 망국 국회에서 유도며 권투, 레스링, 씨름 경기를 한바탕 겪었을 《국회의원》 제씨들은 료정에서 기염을 토하며 두드려 먹고도 모자라 두 서넛씩 갈보를 끼고 택시를 올려 몰고 내려 몰고 한다.

《망난이 국회 의원들의 〈세비〉는 매달 25만 환으로부터 새해에는 45만 환으로 껑충 뛰여 올라 부어라 마시여라 개지랄인데 우린 쥐꼬리만큼한 로임도 제때에 안 주어?》

로동자들은 악에 받쳐 점점 기업주에게 다가든다.

길'가의 전주에 붙은 《도망병 자수 월간》 포스타가 찢기워 코웃음을 치듯 바람에 떤다.

고아들,걸식 아동들이 빨갛게 언 손에 깡통을 달랑거리며 장안의 쓰레기통을 순례한다.

모두 떠는 사람뿐이다.

랍치 당해 간 공화국 북반부 주민들이 인천 만석동을 비롯한 방방곡곡에서 오막살이마저 강제 철거를 당하거나 몇해동안 고생하며 개간한 땅을 앗기우고 한지에서 떨고 있다.

혈액 은행에서 나오는 대학생이 《리재민 구호금 모집 광고》를 찢어 코를 풀며 중얼거린다.

《거지같은 사람들에게서 긁어 낸 푼전과 아이들의 코 묻은 돈마저 3분의 2가 행방불명이라니 리재민 구호는커녕 리재민은 더 불어만 가겠다—》

몇몇 매국노들만이 등 덥고 배부르게 지내지만 놈들은 평화 통일의 넉자만 보아도 목을 움추리고 덜덜 떠니 떨기는 매일반이다.

대포밥으로 끌려나가 《기합술》에 곤죽이 되고 《나이롱 국》에 허기진 피뢰군 청년들은 《동기 기동 작전 훈련》에서 떨다가 쓰러지며 도망치거나 자살한다.

210만의 결핵 환자와 20 여 만의 문둥병 환자를 비롯한 숫한 환자들이 약도 못쓰고 굶어 죽었는지 얼어 죽었는지 앓아 죽었는지 염라대왕도 모르게 죽어 간다.

《대한》에 떨지 않는 자가 정말 없을가?

《대한》에서 주인 행세를 하는 저 미국 강도야 떨리 있겠느냐고? 천만에!

—조선 사람끼리 평화 통일을 이룩할테다. 미국 강도는 군사 분계선 말뚝을 뽑아 가지고 당장 나가라!

겨울 풍경

송 시엽 그림

3천만이 분노의 세찬 바람을 일쿠거니 죄지은 양캐들은 권총 자루만 틀어 잡고 사타구니에 꼬리를 감고 떨지 않을 수 없다.

진짜 추위에 떠는 형제들은 이제 멀지 않은 평화 통일의 날에 포근해질 것이나 미제와 매국노들은 관 속에 들어가는 날까지 떨고만 있을 것이다.

송 시엽 그림

괴뢰군은 침략 도구

조 명식 그림

리승만의 《치안》 대책

최근 더욱 거세게 일어나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탄압하기 위하여 리 승만 도배는 경찰서를 도처에 새로 설치하고 물샐틈없이 경찰들을 풀어 놓고 있다.

이리하여 경상북도 대구시에도 지난 12월 25일에 동대구 경찰서가 새로 설치되였다.

이날 신설된 동대구 경찰서의 순경들은 총동원되여 26일에 할 《개서식》에 인민들을 모으기 위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호통을 쳤다.

《이번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에 동대구 경찰서가 새로 신설됐는데 래일 열시에 개서식을 할터이니 아홉시까지 백사를 제껴 놓고 경찰서 앞마당에 모이란 말이야》

그러자 집 주인은

《또 새로?!》 하며 접먹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것은 요 얼마 전에도 아무 죄 없이 애매하게 경찰서에 끌려가 되게 혼이 나서 경찰이란 말만 들어도 몸서리가 치는 그였기 때문이다. 최근에 도처에서 인민들이 못살겠다고 들고 일어 나니 순경들은 질겁을 해 바짝 신경이 과민해져서는 툭 하면 잡아다가 때리고 문초를 하며 무섭게 군다. 그러니 만치 인민들이 눈에 가시 같은 경찰서가 곁에 새로 서는 것을 끔직해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순경은 집 주인의 얼굴 표정을 날카롭게 쏘아 보더니

《두상!! 왜 그렇게 접내는 거야? 음? 네놈이 경찰서 서는 걸 접내는 걸 보니 암만해도 수상하다!》

《아니 저는 그저 저…》

《거짓말 말아! 죄가 없이야 경찰서 서는 걸 무엇 때문에 접내느냐 말이야!? 네 놈의 집에서 세금을 물지 않던 것도 까닭이 있었구나! 암만해도 빨갱이가 틀림 없어 가자!》

신경이 와짝 날카로워진 순경은 이 칠순이 다 된 늙은이도 마치 커다란 위험 인물처럼 보였다. 그래 속으로 우둘우둘 떨며 오금도 잘 못쓰는 이 령감의 손목에 황급히 고랑쇠를 채웠다.

류치장은 개서하는 날로 꽉 찼다.

이것은 동대구 경찰서 뿐이 아니다.

서울경무대에서

《내무부 장관》이 리 승만에게 아뢰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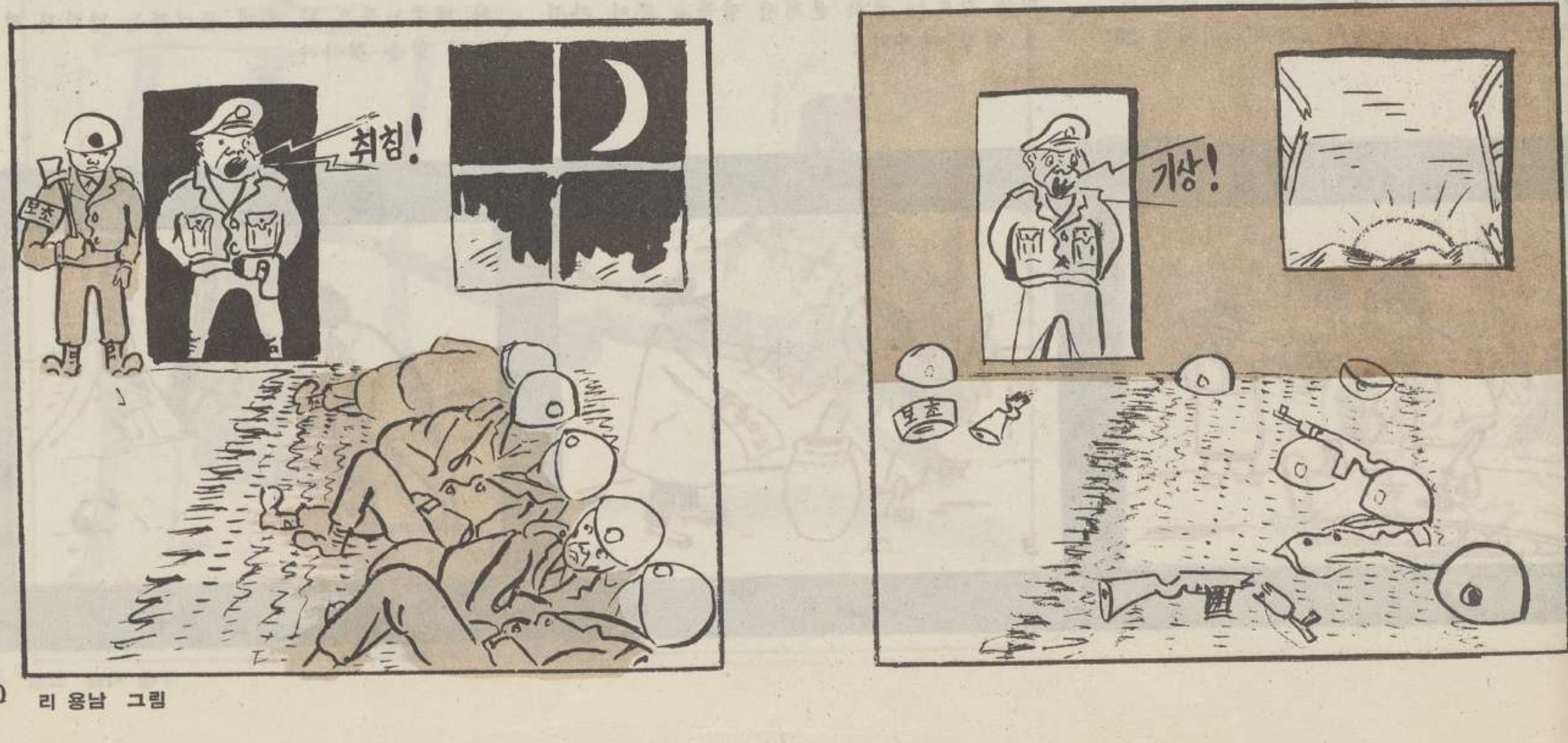
《대통령 각하, 그렇게 많이 증설한 형무소들이 꽉 차도록 잡아 들였는데도 백성들이 못살겠다고 자꾸 들구 일어나는데 어떤 대책을 취하랍니까?》

리 승만은 질겁하여 외마디 소리를 질렀다.

《형무소 형소를 더 지어라!》

리 윤봉

탈 주 병



리 용남 그림

이름 좋은 《후생 사업》

백 인규 그림

괴뢰군 장교놈들은 《후생 사업》이란 미명하에 사병들을 숯구이, 장작 장사에 동원하여 자기들의 돈'벌이에 광분하고 있다

징병령장을 《전달》하기 위하여

송 용남 그림

생활철학

오 석

서울 근교 경찰 지서의 박 순경은 그로서의 독특한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 올 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남의 물건을 들고 오는 습성이 있었다.

그것은 물론 공짜로 들고 오는 것인데 큰 것으로는 장독이나 항아리 같은 도깨그릇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다 못해 성냥갑이나 물'부리 같은 것에 이르기까지 퐉퐉 번지지 않고 집으로 날라 들였다.

뿐만 아니라 점심이나 저녁 한 끼는 반드시 공으로 얻어 먹도록 구멍을 뚫렀고, 신발은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새 것과 바꿔 가지고 오군 하였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철학에 대하여 이야기 하기를 좋아 하였다. 즉 《철학은 신념이요, 신념은 미래다. 미래는 희망인데 희망은 누구나 다 같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자기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철학이 제일이라는 것을 항상 내세웠다. 그것은 우선 실수가 없고, 남의 눈에 크게 띄우지 않으면서도 실속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의 생활 철학을 가리켜서 《빈손 반대》라고 하였다.

× ×

이러한 박 순경이 오늘은 여적 빈손이다. 그것은 공교롭게도 날씨가 궂어서 밖에 나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경찰 지서 앞이라고 꺼려서인지 또는 날씨가 그래서인지 오늘 따라 죽어라 하고 그 앞을 지나 가는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 기다린 보람이 있어 허줄하게 차린 중년 사나이가 우산을 받쳐 쓰고 이 쪽으로 오고 있지 않는가!

《옳지 됐다! 오늘은 우산이나 하나…》

박은 기세 좋게 문을 열어 젖히면서 그 사람을 불러 들였다.

《우산을 이리 내!》

《왜 그러십니까?》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불려 들어 온 그 사람은 뻥뻥했다.

《내라면 낼게지 무슨 잔소리야, 우산을 도적 맞힌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 사람의 손에서 우산을 빼앗듯이 나꾸채 가지고 박은 아래 우로 훑어 보면서 혼자 머리를 끄덕거리였다.

《흠—, 분명히 이거로구나… 살도 하나 부러지구 이렇게 손잡이에 흠집까지 있구… 임마, 이거 어디서 훔쳤어? 엉?》

《아니 훔치다니요, 천만에…》 사나이는 넝큼 놀랬다.

《닥쳐 임마, 대한 경찰은 바지 저고리만 다니는 줄 알아? 바른대로 말해》

《사실 이건…》

《임마, 아니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두 아니야? 야, 내가 몽둥이만 뽑아 드는 날이면 당장에라두 실토를 받을 수 있지만 자네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온언 순사로 묻는거야, 알았어?》

《글쎄 허지만…》

《이봐, 아니 이 사람아, 그야 〈훔쳤다〉라든가 자네 것이 아니라고 한 마디만 하면 만사가 다 해결되는 걸 가지구 응? 으흐흐흐… 그렇잖아? 어때 알만하지?》

박은 이렇게 눙치면서 의미 있게 웃어 보였다.

사나이는 그제야 기미를 알아 차렸다.

《응? 빨리 대답을 하란 말이야.》

이 말은 곧 《우산을 놓구 가겠느냐?》 하는 다짐이라… 그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더니 벌떡 일어서 나와 버렸다.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박은 그 우산을 쓰고 집으로 걸어 가고 있었다. 이렇게 그는 오늘도 자기의 생활 철학에 충실하였다.

직업 없이 떠돌아 다니는 《상이 군인》들이 서울시내에 만도 3천 170 여명이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가족 1만 3천 700여 명과 함께 문전 걸식하면서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계속 되는 몽둥이 기합

송 용남 그림

미군은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 가라!

평북 신의주 미술 제작소 김 경택 그림

참을 수 없다

금년 1월 2일 미제 침략군 중대장 제이 더블류 맥케너리란 놈은 길 가는 남조선 녀성 2 명에게 생트집을 걸어 갖은 욕설을 퍼붓고 행패를 한 후 머리를 몽땅 깎아버리는 잔인 무도한 만행을 꺼리낌 없이 감행하였다.

조 명식 그림

자본가의 도리

원 도명

미국의 한 어머니는 개에 물려서 피투성이가 된 아들을 안고 개의 주인이며 자기가 일하는 공장 주인인 자본가의 집으로 달려 들어 갔다.

자본가는 로동자들의 몰매를 맞고 쫓겨 들어 온 세빠르를 붓안고 갈기갈기 찢어진 개의 《옷》을 벗기고 있었다. 어머니는 아들을 고쳐내라고 대여들었다.

《여긴 병원이 아니요!》

어머니는 자본가의 말에 더욱 분통이 치밀혀서 당장 약값을 치루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자본가는 한참 동안 그들 모녀를 희떱게 바라보고 섰더니 좋은 꾀라도 생각해 낸듯이 어머니에게로 가까이 다가 가며

《그런데 당신 수입은 한달에 얼마나 되오?》

하고 물었다.

《93 딸라요…》

어머니의 말이 떨어지자 자본가는 껄껄거리며 불룩 나온 배에 털보숭이 손을 얹고 말했다.

《약값을 낼 경우가 되면 내야지요, 그러나 형편이 그리 된 것 같지 못하오. 당신 아들 탓으로 해서 찢어진 개의 옷값이 300 딸라요. 그러니 당신이 빼가 빠지게 석달 동안 우리 공장에서 무보수로 일한다 해도 21 딸라가 모자라오. 마지막 21 딸라를 당신이 치를 때 나는 약 값을 치를 것이요. 회계는 괴차 똑똑히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도리가 아니겠소?》

어리석은 자

평북 신의주 미술 제작소 김 경택 그림

《미국 로동 실태 종합 선집》에 인용된 자료에 의하면 1958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는 실업자 수가 4백만명 이하로 떨어진 일이 없다. 그들은 가족들과 함께 무서운 재난을 겪고 있는바 로스안젤스의 한 실업 로동자는 자기 처와네 명의 자녀들을 부양할 수 없어 얼마전에 자살하였다.

송 용남 그림

재일 동포들의 귀국 사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갖은 발악적 파괴 공작을 추진시켜 오던 리승만 도당은 드디어 니이가다 집결소를 폭파시키려는 음모까지 꾸미는데 이르렀다.

폭 발

재일 동포 집결소 폭파 음모 계획은……

박 승히 그림

사전에 폭로 되였다

서구 렬강의 《행동 통일》

14 백 인균 그림

아이젠하워와 개

로 순철

아이젠하워 부인은 녀자용 고급 담배 "퀸 메리"를 피워 문채 수화기를 들었다.

《아로! 뉴욕 개 학원 원장이오? 여기는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로"요. 안녕하시오? 그래 학원의 개원식 준비는 다 됐소? 지금 각처에서 들어 오는 축하 편지, 축하 선물을 정리중이라구? 대체 누가 보내 온 것들인지 어데 하나 읽어 보시오.

"포드" 자동차 회사에서 보내 온 것이라, 뭐라구 했소? "개원식을 축하함. 뉴욕 개 학원이 본 회사의 제품 판매에 새로운 고무적 전망을 열어 준다고 확신하면서 이에 1963년 형의 개 전용 승용차"독 포드 호"2대를 귀 학원의 실습용으로 선물함" 쳇! 린색한 자식! 우리 대 미국의 고위 고관들의 가장 애지 중지하는 개들에게 현대 아메리카 문화의 정화를 교육 준다는데 2 대가 다 뭐요! 적어도 20대를 보내지 않으면 재미 없는 줄 알라구.

명예 원장의 명의로 회답을 써 보내시오.

다음엔 또 어떤 것들이 있소? "오워드 푸르트" 통조림 회사에서 개 식사용 통조림 "다쉬 독 푸드"를 600 상자 선사해 왔구 개 전용 미장원 "아메리칸 독 바리칸"에서는 학원 학생들에게 한달에 한번씩 무료 봉사를 하겠다구 제의해 왔구 기타 애견 협회, 개 려관, 개 식당 등 여러 전문 단체, 기관 회사들에서도…… 좋소, 좋와, 그만하면 우리 개학원의 첫 발족이 실업계와 사회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다는 걸 넉넉히 짐작할 수 있소.

학과표도 다 준비 되였겠지? 어데 좀 읽어 보오. 아침 10시에 등교해서 10분간 조회를 한 다음 30 분간 체조를 하구…… 체조 교원은 누구요? 뉴욕 체육 대학 카이트씨라? 좋소, 그 사람이면 우리 개들의 다리를 움쩔러 놓는 일이 생기지 않겠지, 심리학은 누가 가르치오? 심리학 박사 오켄스타드씨라구? 처음 듣는 이름인데 그 박사가 개의 언어를 아시오? 벌써 3년째 연구한 분이라구? 그렇더라두 우리 개들은 여러 사교장에 출입이 잦은 만큼 잘 길들이게 하려면 이만 저만 연구가 있지 않구서는 안될거요…

이렇듯…좋소, 하루 3시간 학습, 1시간 식사, 2시간 오침, 학업 기간은 3개월이구 수업료는 일전에 말한 것처럼 1주일에 50 딸라로 정하는 것이 좋겠소…….

뭐 어쨌다구요? 협박장이 온 것이 있다구? 뭐라고 쓰고 있소?

"거리에는 거지가 떼를 지어 다니며 수백만 실업자가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잘 것 없는 개의 소위 "교육비"로 매주 50 딸라를 내 던지고 있으니 이것이 미국의 인도주의인가? 아니, 이것은 개도주의이다!"

"2천 300만 아동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는 이때 개를 위하여서는 왕궁 같은 학교를 지어 놓고 있는 당신들, 개에 복무하고 있는 집정자들에게 저주가 있으라!"

이건, 이건… 빨갱이들의 조작이요! 공산주의 위협이란 말이요! 당장 련방 조사국이나 반미 활동 조사 위원회에 넘기시오! 범인을 체포하게 하시오!

… 좋소, 이젠 좀 진정되였으니 안심하시오, 또 무슨 문제가 있소?

우리 개 "미첼"말이오? 암, 물론 래일 개원식에는 주석단에 모셔야지. 지금 우리 "미첼"은 아이크 (아이젠하워)와 함께 11개국을 방문중인데 래일 20일 모로코 방문이 끝나면 인차 전용 비행기로 돌아와서 그 길로 개원식에 참가하게 될거요. 물론 나두 아이크와 함께 방청으로 가겠소》.

이로써 이야기는 끝났는데 이때 먼 모로코의 카사브란카에서 장거리 전화가 왔다.

《나요, 아이크요. 카사브란카에서 전화를 하고 있소. 급한 일이 생겼소. "미첼"은 래일 개원식에 참가 못할 것 같소. 입원했소! 놀라지 마오! 그리 큰 부상은 아니오.

사실의 전말은 이렇게 됐소. 방금 전에 모로코 왕 모하메트 5세라는 작자와 회담을 끝마치고 나오는데 그때 내가 "미첼"을 데리구 국왕파의 회담에 참가했다구 수만 군중이 모여 들어서 사방으로부터 돌 팔매질을 하는 바람에 나는 겨우 빠져 나갔고 "미첼"은 그만 정갱이가 불러져서……》

《오, 가련한 나의 "미첼"! 오, 미욱하고 〈야만적〉인 모로코인들……》

하고 아이젠하워 부인은 그 자리에 졸도하였다.

앉은뱅이 용 쓴다

배 주고 속 빌어 먹는다

최 영근 그림

결 말

최근 제국주의 지배 계층의 사촉하에 서부 독일을 비롯하여 미국과 서구라파에서 파쑈적 반유태인 깜빠니야가 일어나고 있다.

송 용남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소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소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15018
발행 1960. 1. 23
(값 40전)

식민주의자의 비명

8034
Хвальсаль

—으악!! 하느님 맙소서
저것마저 무너지누나

백 인규

г.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ольству
10 1-12 №8034